

영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총 20억 규모…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

영암군이 오는 7월31일까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취지로 한 ‘2025년 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영암군민이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군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

이번 공모는 총 2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군정 참여형 사업’에 올리는 ‘읍·면 자치 계획 참여형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읍·면 자치 계획 참여형 사업은 읍·면에서 발굴·제안하는 것

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은 자치회의, 이외 지역은 이장회의나 주민의견수렴 회의 등을 거쳐 제안하면 된다.

제안은 영암군민을 포함한 영암군의 직장·학교·단체에 소속된 누구나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주민참여’ 사이트에 접속해 ‘전남>영암군’란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 기획예산실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문·우편 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서 및 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2026년도 영암군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무안 ‘달려가는 무안 건강행복버스’ 운영

경로당·마을회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

무안군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달려가는 무안 건강행복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려가는 무안 건강행복버스’는 바쁜 일상에서 건강관리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건강관리 사업이다.

기존에는 경로당을 1회씩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곳을 순회하는 방식이었으나, 건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경로당을 4회에 걸쳐 방문해 집

중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구강관리, 영양교육, 비만예방, 금연·절주 교육, 한방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심층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증진실 내 운동기구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전문인력인 운동지도사가 직접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하고 시연해 군민들이 운동기구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안=김상문 기자

목포,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 교육 실시



목포시는 최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 등 공직자들이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

는 사례들을 통해 실질적인 부패방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반부패·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시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완도, 저출산 극복 ‘임신·출산 지원 정책’ 다양

지난해 출생아 수 171명, 합계 출산율 1.24명 상승

임신 사전 건강관리·출산 전 준비금·난임 시술비 등

완도군의 출생아 수는 ‘23년 143명에서 ‘24년 171명으로 19.58% 증가했으며, 합계 출산율은 ‘23년 1.05명, ‘24년 1.24명으로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남 합계 출산율 1.03명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완도군은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기존에 1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따라 주기별(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임신 시 무료 건강검진,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등) 및 교통카드(20만 원), 출산 전 준비금(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첫 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등), 출산 장려금(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300만 원, 여섯째아 2,100만 원 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돌맞이 축하금과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완도대성병원) 이용 시 다문화가정, 장애인, 귀촌·귀농자,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은 이용료를 70% 감면되며, 군에서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이용

료 50% 감면해주고 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를 연령에 관계 없이 1회당 최대 30~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우철 군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군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신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세계기후총회서 ‘주목’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글로벌 모범사례 집중 조명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세계 지방정부 대표자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번 총회는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

(ICLEI)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기후행동 회의로, 전 세계 44개국에서 1,600여 명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행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과

학 기반의 녹색 전환이라는 주제,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재생에너지 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했다.

신안군 세계유산과 기획 과장은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소개하며, 이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극복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아우르는 혁신적 모델임을 강조했다.

신안군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태 보전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톨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정경욱 기자

강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공모 선정

병영시장 노후 전기설비 전면 정비 화재 예방 인프라 구축

강진군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병영시장은 총 사업비 7500만 원 중 국비 5300만 원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진군은 병영시장 내 노후 전기설비 정비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장 내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병영시장에서는 이용객 편의를 위

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시장인근 유흥부지에 차량 6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이를 통해 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도비 공모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경선 기자

해남, ‘혼밥당당’ 식당

오는 25일까지 모집

해남군이 1인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해남 혼밥당당’ 식당 지정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2023년 말 전국 기준 35.5%)하는 것은 물론 홀로 여행객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해남군은 혼밥족에게 식사편의를 제공하는 혼밥당당식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해남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혼자하는 식사(혼밥)도 당당하게’를 뜻하는 ‘해남 혼밥당당’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5개소의 혼밥당당식당을 지정했다.

올해는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오는 25일까지 모집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해남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군 관광위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된 식당에는 표지판 부착 및 해충방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지정 업소에는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업소는 관광위생분야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도 따른다.

또한 해남군 관광누리집 및 공식 SNS등을 통해 ‘혼자 식사하기 좋은 업소’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